

## 9-4. 재정분석 결과

분 야 (분석지표)		해당자치단체	전국평균	유사 지자체 평균
I. 재정건전성	1. 통합재정수지비율	6.64%	3.55%	9.17%
	2. 경상수지비율	51.26%	67.58%	60.28%
	3. 관리채무비율	0.00%	7.35%	2.53%
	4. 통합유동부채비율	3.56%	23.26%	9.77%
	5. 공기업부채비율	49.21%	37.26%	18.96%
	6.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	△5.37%	0.92%	△3.06%
II. 재정효율성	7. 자체수입비율	7.30%	25.9%	7.09%
	8. 지방세징수율	97.32%	97.8%	96.11%
	8-1. 지방세징수율 제고율	1.0004	1.0007	1.0009
	9. 체납액관리비율	0.57%	1.51%	1.67%
	9-1. 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	9.19%	△5.44%	1.67%
	10. 지방보조금비율	8.56%	6.14%	9.23%
	10-1. 지방보조금 증감률	△3.63%	3.07%	2.60%
	11. 출자.출연.전출금비율	3.47%	2.48%	3.14%
	11-1. 출자.출연.전출금 증감률	15.37%	4.28%	4.26%
	12. 지방의회경비 절감률	12.50%	19.10%	20.09%
13. 업무추진비 절감률	30.83%	22.61%	17.84%	

▶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,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('19.11. 예정)

☞ 업무추진비 절감률(30.8%)과 관리채무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 등 부채관련 지표값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음. 이는 국가에서 권장하던 수질개선사업으로 '09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'10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시행한 데 기인한 것임. 그러나 2035년까지 연차적으로 임대료를 상환할 예정이므로 점차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

❖ 참고 : 분석지표별 산정공식

지 표 명	산 식	속성	지표값 설명
1. 통합재정수지비율	$(\text{세입} - \text{지출 및 순융자}) / \text{통합재정규모} \times 100$	↑	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
2. 경상수지비율	$\text{경상비용} / \text{경상수익} \times 100$	↓	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
3. 관리채무비율	$\text{지방채무잔액(BTL 지급액 포함)} / \text{세입결산액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
4. 통합유동부채비율	$\text{유동부채} / \text{유동자산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
5. 공기업부채비율	$\text{부채총액} / \text{자기자본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
6.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	$\text{영업이익} / \text{총자본} \times 100$	↑	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, 재정안정성이 우수함
7. 자체수입비율(증감률)	$3\text{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} / \text{세입결산액} \times 100$	↑	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지구노력이 높음
8. 지방세징수율(제고율)	$\text{지방세실제수납액} / \text{지방세징수결정액} \times 100$	↑	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
9. 체납액관리비율(증감률)	$\text{체납누계액} / \text{세입결산액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
10. 지방보조금비율(증감률)	$\text{지방보조금결산액} / \text{세출결산액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
11. 출자출연 전출금비율(증감률)	$\text{출자.출연.전출금결산액} / \text{세출결산액} \times 100$	↓	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
12. 지방의회경비절감률	$100 - \{(\text{지방의회경비 결산액} / \text{지방의회경비 기준액}) \times 100\}$	↑	지표값이 높을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
13. 업무추진비절감률	$100 - \{(\text{업무추진비 결산액} / \text{업무추진비 기준액}) \times 100\}$	↑	지표값이 높을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